

## “정화 원동력은 위법망구의 정신”

〈爲法忘軀〉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법회...유일 '육비구' 월탄스님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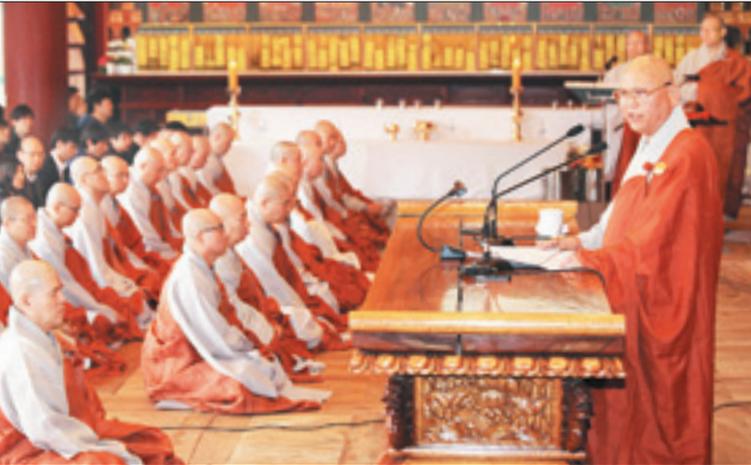
한국불교 정체성 복원  
 최초 자주적 교단 형성  
 역사적 의의 되새기다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 정체성 회복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법석이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출범한 1962년 4월 11일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독신출가자에 한해 승려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종편 수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날 대한불교 조계종 총대 총정에 효봉스님(비구족), 총무원장에 석진스님(대처족)이 취임하면서 종단은 청정비구승의 범용을 회복했다. 아울러 '포교' '역경' '도제 양성(승가교육)'을 3대 지표로 설정하면서 본격적인 불교중흥의 길을 걸었다. 통합종단 출범은 조선왕조의 억불정책과 일제강점기의 왜색불교로 인해 퇴락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복원했다는 점, 그리고 최초로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교단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특히 법회에선 불교정화를 외치며 대법원에서 활발히 진행한 '6비구' 가운데 한 명인 월탄스님을 기점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종단은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종교로서 전통문화와 수호하고 민족의 정신을 계도하는 자랑스러운 면모를 유지했다"고 평가하며 "끊임없이 사회와 소통하며 희망찬 미래를 열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반세기를 기념하는 의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종단은 50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사전자료 전시회 '종단 50년, 기록과 대화하다(4월4~10일)'를 열었으며, 앞으로 사부대중 결집대회, 학술세미나, 육조 해능대사 좌상 봉안법회 등으로 통합종단 출범의 의미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지난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법회'가 봉행됐다. 1960년 불교정화를 외치며 대법원에서 활발한 '6비구' 중 한명인 월탄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as501@bulgyo.com

## 조계종 50년 '성찰' 시대적 과제 '모색'

불교사회연구소 25일 세미나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아 불교사회연구소가 조계종의 50년을 성찰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조계종 출범 반세기를 맞아 한국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조계종의 위치와 정체성을 조명하고 향후 50년 조계종이 나아가갈 시대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범

안스님)는 오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 50년의 성찰과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 1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종단출범의 의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종단출범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고찰할 예정이다. 이어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범안스님이 '조계종 종편의 형성 과정과 변천'을 주제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영단스님이 '조계종의 교구제도 및 사물관리체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와 함께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허정스님, 김성진 동국대 교수, 심익설 동국대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 社告

#### 라오스에 희망을 밝히는 '나눔결사'에 동참을!

월 1만원의 장기후원에 참여하면 수습비가 없어 시력을 잃어가는 라오스 어린이들의 눈망울에 빛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나눔, 작은 실천이 시작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신문사가 함께 합니다.

- 목 표 액 : 1억원(1인 수습비 10만원)
- 후원방법 : 월 1만원 이상 자유기금 참여
- 후원계좌 : 농협 301-0058-8672-51 (예금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문 의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02)723-5101

## '통일 연등' 금강산 밝힌다

불교신문-민추본  
 '신세계 등 달기'  
 5월9일까지 캠페인

불기255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민족화해와 평화를 발원하는 통일 연등이 금강산을 완하게 비출 예정이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스님, 이하 민추본)는 불교신문(사장 수승스님)과 공동으로 '부처님오신날 불국 금강산 신세계 등 달기 사업 모연캠페인'을 공동 실시한다. 금강산 신세계 등달기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 불교계가 함께 부처님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리고 화해와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연등 모연 동참금은 대북지원 기금으로 사용된다.

조계종 소속 전국 사찰과 불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민족에게 화합과 평화'라는 문구를 등표에 달아 민족 화해와 평화를 발원하게 된다. 민추본에서 일괄 접수해 금강산 신세계 대웅전과 만세루에 설치되며, 5월10일로 예정된 남북합동법회와 정동식에 이어 5월 31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개인은 1만원이상, 사찰 및 단체의 경우에는 10만원이상 접수 가능하며 5월 9일까지 민추본에서 접수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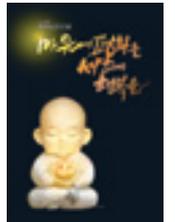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 동자승 '마음에 평화~' 기원

불국포스터 공개  
 연등회 8개 언어  
 '소책자'도 만들어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불국포스터가 제작됐다. 불국위원회(위원장 지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올해 부처님오신날 불국포스터를 지난 5일 공개했다.

포스터의 디자인은 황선을 하고 있는 동자승(정도연)이 두 손으로 불을 밝힌 연등을 받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불국포스터로 선정된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이룬다' 문구도 새겨 넣었다. 검은색(사건)과 노란색 바탕 2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작된 포스터는 연등회 홈페이지(www.llf.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불국위원회는 국제적 축제로 자리매김한 연등회의 홍보를 위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8개 언어로 된 소책자도 만들었다.

장영섭 기자 sue@bulgyo.com

## 생명나눔 4월 환우 간경화 황창용 씨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스님)는 4월 치료비 지원 선정한환우 간경화를 앓고 있는 황창용(41·사건) 씨를 선정했다.

황창용 씨는 지난 2월 갑작스런 발달과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10년 전에 발생한 간경화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없이 썩씩하고 예쁜게 자라온 딸이 있기에 그는 희망을 끈을 버리지 않고 집중치료를 받으려 하 무라루를 힘겹게 버텨나갔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뇌사자의 간을 이식받을 수 있다는 희망찬 소식을 접했다. 이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 중에 있다. 하지만 간 이식으로 새로운 삶을 되찾은 그에게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3000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그의 부모는 청각장애와 지체장애를 앓고 있어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최정길 기자 hjc@bulgyo.com

티베트 사태 배경... 평화염원 목소리 8·9면



2012년 전통문화수호와 문화결사의 일환으로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사찰 방재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기화재예측시스템, 아크경보기, 통신형누전차단기, 낙뢰보호기, 지능형분전반 전문기업

**SATURN** 새턴정보통신(주)

TEL : 1688-9450 www.saturninfo.co.kr

스마트폰 기반 지능형 CCTV, 화재, 도난, 침입, 감시 등 재난 통합관제 시스템 전문기업

**PT (주)파슨텍 SmartCops**

TEL : 1588-4395 www.smartcops.co.kr



**전통사찰 방재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 인증 업체**